

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②

做工夫 要中正勁挺 不近人情
주공부 요정정경정 불근인정
苟循情應對則工夫做不上
구순정응대즉공부주불상
不但工夫做不上 日久月深
부단공부주불상 일구월심
必隨流俗 阿師無礙也
필수유곡 아사무의야

의심덩어리와 더불어 한 곳에 매여 있기
만 하면 시끄러운 환경은 쫓아내지 않
아도 저절로 물러갈 것이요, 망령된
마음은 맑히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맑
아질 것이다. 육근(六根)의 문턱이 자
연히 텅비고 넓어서 손짓만 하면 즉시
오고, 부르면 즉시 대답할 것인데 어
찌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참선하는 데는 중심을 바르게 하고,
굳건하여 인정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인정에 이끌리게 되면 공부에 진
취가 없을 것이다. 공부에 진취가 없
을 뿐 아니라 세월이 깊어지면 반드시
세속의 속물로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
다.

做工夫 攀起話頭時 要歷歷明明
주공부 거기화두시 요력력명명
如捕鼠相以 古所謂不斬 奴
여묘포상사 고소위불참여노
穢不休 不然則坐在鬼窟裏 昏昏
서불휴 불연즉좌재귀굴리 혼혼
沈沈 過了一生 有何所益
침침 과료일생 유하소익

참선을 하되 화두를 들 때는 반드시
화두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한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해야 한
다. 옛사람이 '살랭이(여기서는 살된
생각을 비유했음)의 목을 베지 못하면
결코 쉬지 않으리라'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귀신굴에 주저앉아 흐리멍덩하
게 일생을 마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做工夫 擡頭不見天 低頭不見地
주공부인 대두불견천 저두불견지
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行不知行
간산불시산 견수불시수 행부지행
坐不知坐 千人萬人之中
좌부지와 천인만인중
不見有一人 通身內外 只是一箇圓團
불견유일인 통신내외 지시일개의단
疑團不破 誓不休 此爲工夫緊要也
의단불파 서불휴 차위공부긴요야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도 하
貓捕鼠 睛開兩眼 四脚撐撐

참선함에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의심덩어리와 더불어 오직 한곳만

늘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도 땅
을 보지 못하며, 산을 보아도 산이 아
니요, 물을 보아도 물이 아니다.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
며, 천 사람 만 사람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도 보지 못해야 한다. 몸과 마
음이 온통 한 개의 의심덩어리 뿐이니,
의심덩어리를 부수지 않고는 명세로 쉬
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묘포서 정개암안 사각탱탱
只要拿鼠到口 始得 縱有鷄犬在傍
지요나서도구 시득 종유계견제방
亦不礙 參禪者 亦復如是 只是
역불애 참선자 역부여시 지시
憤然要明此理 縱八境 交錯于前
분연요명차리 종광경 교착우전
亦不礙 縱有別念 非但鼠
역불애 종유벌념 비단사
兼忘却貓兒 겸주각묘서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딱 버티고, 어떻
게 하면 쥐를 잡아 먹을까만을 생각한
다. 비록 곁에 닭이나 개가 있다 해도
눈 한번 팔지 않는다. 참선하는 사람
도 이같이 하여 분명히 이런 도리를
밝히겠다는 각오로 어떠한 역경(八境)
이 눈 앞에 나타나더라도 역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만약 편생각을 일
으킨다면 쥐뿐만 아니라 고양이 새끼
도 놓치게 될 것이다.

做工夫 不待死不得活 只怕活不得死
주공부 불파사부득활 지파활부득사
果與賊情 團結在一處乎
과여의정 시결재일처호
動境不待遣而自遣 安心不待淨而
동경부대견이자견 망심부대정이
自淨 六根門頭自然虛豁豁地
자정 육근문두자연허활활지
點着剎到 呼着剎應 何愁不活也
점착착도 호착착응 하수불활야

참선하는 데는 죽기를 두려워 말고
살기를 바라지 말라. 다만 살기만 하
고 죽지 않을까를 걱정하라. 진실로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자기의 위치 지킬때

혜흡스님 (한국법화본종 법주)

을 한해도 수많은 시시비비로 얼룩진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
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근원적 행동이며 원동적 구실(口實)을
움직이는 것이 오직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짓는 과편
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기 말을 맞은 올해는 그 과편의 의미
가 또 남달랐다고 봅니다. 유난히 자연
환경의 오염과 핵전쟁, 그리고 지진과 화
산폭발 등의 지각 변동과 이상 기후로
인류 멸망의 위기가 임박해졌던 한 해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기 말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었죠.

종말론과 같은 세기 말의 현상은 제 마
음이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나
약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
기라는 것은 지극히 작기도 하고 미미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로 우주보다 더 크
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자기 회복은 곧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잃고 사는 사람이야말
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
을 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시
시비비가 끊어지지 않으며 투쟁으로 이
어지게 됩니다. 세기 말 현상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인이 쓴 안면문답(顔面
問答)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
내용은 '입, 코, 눈, 눈썹'의 문답을 내용
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날 입, 코, 눈이
눈썹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
습니다.

"어째서 너는 우리를 위해 있어 거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눈썹에게 불경을 털어놓게 되었
습니다.

그러자 눈썹이 "자네들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지. 입으로는 음식물을 먹고,
코로는 숨을 쉬며, 눈으로는 사물을 보는
등 자네들의 수고로움에 항상 감사하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눈, 코, 입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나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대답을 할 수 없네. 다만
조상대로 물려 준 자리를 지키며 미안
하다. 미안하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 자
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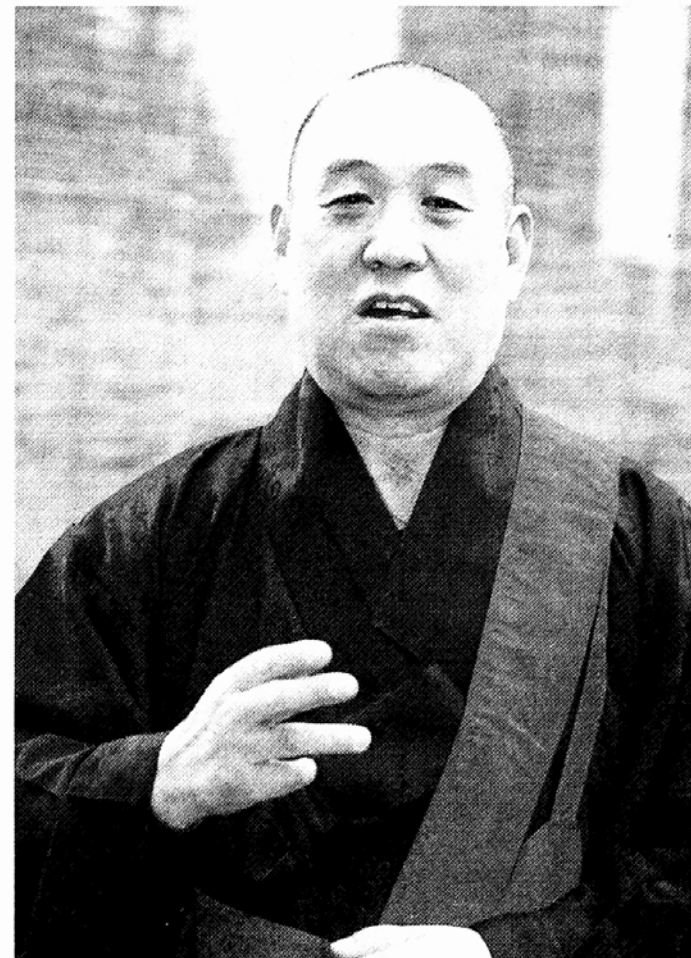
한토막 우순은 이야기 같지만 조상대
대로 물려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말 속에 깊은 공감을 느

끼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수행, 자기를 지키는
수행, 자기를 성찰하는 수행, 이 모두는 곧
자기회복의 길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모든 시비의 근원은 자기를 지
키지 못하면서 오며 수행의 부족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스님을 아버지로 태어나 어릴 적
부터 절 집안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은 종명을 법화본종으로
바꾸었습니다만 <법화경> 연구에 일가를
이루신 법화종의 창종주이신 혜선스님
입니다. 법화본종 소속 스님들은 어릴
적부터 스님과 똑같이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
부가 너무 힘들어 즐거움을 하지 않으려고
도 해 보았지만 결국 스님의 삶을 살게

- 29년 4월8일 수일 생
41~47년 일본 코오베서 수행
48년 법화사 수공스님을 계사로
득도
65년 한국불교법화종 교육부장
취임
80년 (재) 한국불교법화본종(구
법화종)유지재단 이사장 및 총무
원장 취임
94년 일본 법화종으로부터 승정
호 받음
98년 한국불교법화본종 법주 취임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 말씀 더욱 간절
확고한 믿음으로 사세요”

되었습니다. 전생의 인연공덕이 있었던
같습니다.

5~6세 때부터 불경을 읽었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해방 전까지 <법
화경> 공부를 위해 일본 법화종 사찰에
서 살기도 했죠. 일본에서 승직을 가지려
면 오랜 행자 생활을 거쳐야 하는데
오즘의 우리 나라 행자생활과는 그 내용면
에서 차이가 컸지요. 일본 스님의 가족까
지도 그 스님 섬기듯 해야 했고, 집안의
갖가지 허드렛 일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일
본의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은 타지에
서의 외로움을 더했죠. 작은 실수에도 다
른 스님들로부터 '조선징'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외톨이박이가 돼야 했고, 일본 스
님의 말씀과 한 집안에서 살아야 했으니
그에따른 불편한 등을 모두 감내해야 했
습니다.

고오베의 간음교회(포교당 형식의 일
본 절을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름했다)에
서 살 때에는 모모이(陶井) 스님에게

는 팔 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예불 보고 법당
청소며 도량 청소를 마치고 밥 한 술 떠
려고 하면 그 스님의 말씀이 빙 둘러앉
은 법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 같습니다. 한강 먹성이 좋을
나이에다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도 행여 그 여자들이 '조선사람들 밥 많
이 먹는다'고 흉을 볼까봐 제대로 먹지
도 못하고 배 고프는 설움까지 이겨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배가 고팠겠어요. 더 일찍
일어나 할 일을 마치고 혼자 공양간에
들어가 물대 밥을 쟁겨 먹고 학교를 다
녔습니다.

그때는 힘들기만 한 일들이었지만 지
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나이가 들
긴 했다 봅니다.

일본의 스님들은 출가자에게 처음부터
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수행정진하
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님이 살아

이제는 집에서든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
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화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화홍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죽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김진우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세한 문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향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진저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판과 출판사별 색인판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지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